


커피는 사랑을 싣고
이웃 돕는 바리스타 3총사

Issue 132 \ April 2018

04 사랑의 열매







4월은 특별하다

보통만큼 살기를 바랐는데...
누구에게는 그 '보통만큼'이 머나먼 꿈.
함부로 '남들처럼'이라 말하지 마라.
때로는 그 말이 더 아프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발달장애 청년이 산다.
목련이 열두 번 피고 지는 동안 몸은 자랐는데,
처음 봤을 때처럼 어린아이 같다.
그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소리치고,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뻗어 의미 없이 웃을 때,
남들에게 피해갈까 그의 아버지는 조심스럽다.

평범함을 강요하는 시선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무심한 충고와
왜 남들처럼 어울리지 못하냐는 그 작은 한마디가
봄을 앗아간다.
은 세상 라일락과 벚꽃이 만발한 4월에
왜 내 인생은 남들처럼 봄이 아니냐고
도대체 내 봄날은 언제 오냐고
'잔인한 4월'을 노래한 시인처럼
피로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한다.
특별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특별하니까.

목차



08



First Person

월급 모아 기부하는 바리스타 3총사

12



특집

사랑의열매, 장애인 자립 지원

19



포토뉴스

찾아가는 장애인사물놀이팀 '땀띠'... "형! 최고예요"

20



나눔명소

사랑의열매 조형물 배경으로 이웃사랑 찍으세요

22



현장

화성시청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조성

23



나의 나눔 이야기

하늘 나라로 떠난 여보... 당신 뜻대로 기부했어요!

24



착한기업

LG화학

30



착한일터

삼성바이오에피스

32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

전남 여수



Cover



아주 특별한 바리스타들을 만났다. 맘 홀려 번 돈의 일부를 조금씩 모아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해온 바리스타 하민수, 최민수, 이세건씨(왼쪽부터). 커피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이들은 커피를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36

희망스토리

동네 환경 바꿨더니 행복열매 주렁주렁

38

The Page

발레 <저젤>에서 보는 사랑과 나눔

40

포커스

허동수 8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퇴임

44

나눔 리포트

모금기관 '말형'으로 존경받으려면

46

화제

'배달의민족' 창업 김봉진 대표 50억 원 기부

47

모금회 뉴스

중앙회·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8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32 2018 / 4

발행인 김명자

발행일 2018년 4월 / 통권 132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증, 라00605

기획·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모이면, 희망이 보입니다.

사랑의열매는 개인기부 33만 명, 착한가게 2만 3,184여 곳,
아너 소사이어티 1,772회원과 기업 28,047개의 참여로
매년 더욱 풍성하게 열립니다.

201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5,553억 원**
(81만 건)은 국내 10대 자선단체와 모금기관의
국내 공익사업비 지출 1조 600억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출처_한국가이드스타>

빈곤 지원
3,990억

질병 지원
749억

소외 지원
814억



빈곤
분야 지원액

기초생계
2,567억

교육·자립
925억

주거·환경
498억

질병
분야 지원액

보건·의료
607억

심리·정서
142억

소외
분야 지원액

사회적돌봄
377억

소통·참여
260억

문화경차해소
177억

2017년 총 지원액

5,553억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 전문 기관입니다.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장 투명한 기부금 관리,
공정한 지원절차로 대한민국의 민간 복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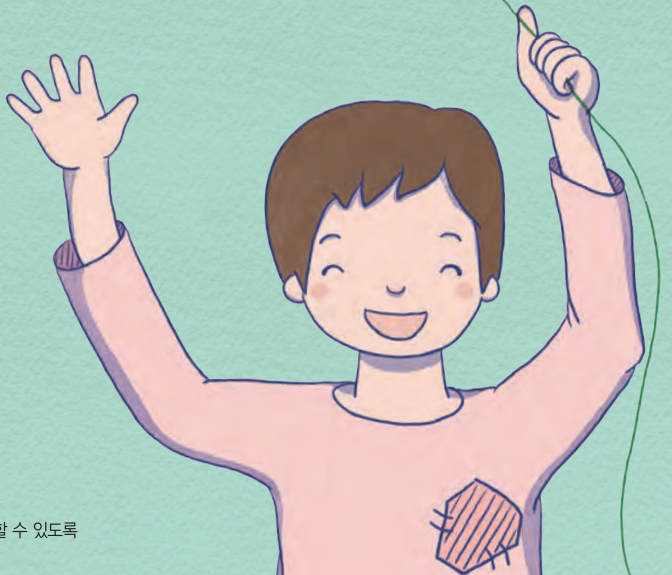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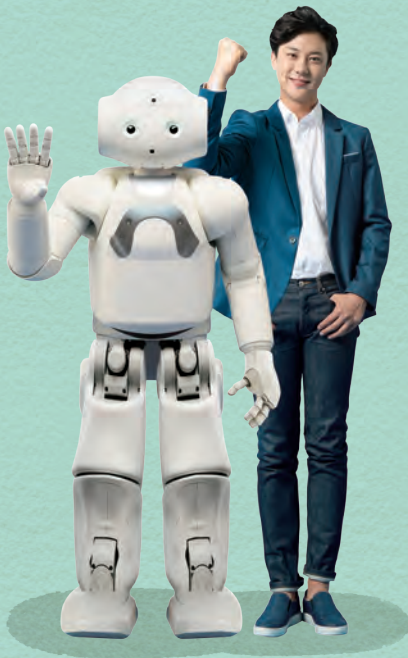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나눔의 새로운 길

사랑의열매가 시작했습니다

가난으로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 굴레를 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꿈을 이루는 기회를 줍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14~24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로지원을 돕는 '희망플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부상담 080-890-1212 | ARS 기부 060-700-1212

First Person

글 손수원 사진 이종민





월급 모아 기부하는 ☕ 바리스타 3총사

커피 한 잔에 나눔 세 모금

우리는 보통 ‘커피 한 잔의 여유’라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해솔의 포항멘토장애인평생교육원(원장 서은주) 이용자 하민수(31), 이세건(28), 최민수(22)씨는 이 커피 한 잔에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멘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후 커피숍에 취업해 직접 커피를 만들면서 번 돈의 일부를 모아 ‘희망2018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았다. 커피 한 잔에 담긴 행복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들을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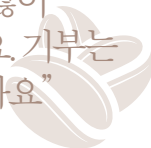
“진한 커피 드릴까요, 연한 커피 드릴까요?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 따뜻한 커피를 드세요.”

어찌 알았을까, 봄비 내리는 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절실하게 생각나고 있던 중이런 것을. 하민수, 이세건 바리스타가 커피 원두를 커피머신에 넣고 에스프레소를 내린 후 뜨거운 물을 섞는 모습이 능숙하다. 그들이 직접 내온 커피는 언 몸을 따뜻하게 녹여 주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해솔의 포항멘토장애인평생교육원(이하 멘토교육원)에서 실시한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지적장애인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본 욕구를 해소하는 것에 집착이 심해요. 저희 시설에 들어올 때엔 공격성도 심했죠. 지금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나서기를 싫어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바리스타가 되어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재미있다고 말해요.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립성도 생겼고요.”

“맛있는 커피처럼
우리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나와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었으면 해요. 기부는
착한 일이잖아요”



하민수씨

서은주 멘토교육원 원장은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고립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기특한 것은 “적은 월급에서 얼마씩을 성금으로 모아 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당당히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셨죠. 우리 아이들이 커피를 내리는 일이나 계산하는 것, 청소 등의 일은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 비해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참아주고 계속 일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무척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적더라도 땀 흘려 번 월급의 얼마씩을 모아 우리보다 더 못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아이들도 기뻐하더라고요.”

“앞치마 두르고 커피 내리는 모습 내가 봐도 멋져”

멘토교육원이 처음 성금을 모아 기부한 것이 2012년 1월이었으니 벌써 7년째가 되었다. 그동안은 평생교육원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번 수입이나 해솔 산하에 있는 보람의집, 멘토의집, 은혜의집, 예원의집과 포항시 해도동 주변 휴양지·공원에서 미니카페를 열고 손수 내린 커피와 음료, 음식 등을 판매해 번 수익금 중 일부를 모았다.

올해 역시 바리스타 3층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원 이용자 10여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3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월급을 받아 자신이 사고 싶은 옷이나 물건을 사고 난 후 성금으로 꼭 얼마씩은 모아둔다고 했다.

만항 하민수씨는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이 참 즐겁다고 말했다. 자신은 이제 바리스타가 되어 돈을 버니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세간씨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직접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부를 통해 고마움을 나누는 것도 참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커피를 만들다 보면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요. 앞치마를 하고 커피 내리는 모습이 멋지고 부럽다고 해요. 저도 그런 제 모습이 멋져요. 많은 사람들이 잘하라고 응원해 주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 막내 최민수씨가 도착했다. 그 역시 지난해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후 지금은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히즈빈스’ 문화예술관점에서 일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만든 커피는 어떤 맛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했어요. 제 커피요? 맛있어요. 손님들도 좋아하시고요. 근데 사실 전 커피믹스를 제일 좋아해요.”

세 명 모두 커피를 내리는 일이 재미있지만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어 내놓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내린 커피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손님들도 있고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빨리 근무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 역시 형들을 따라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막내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기부의 의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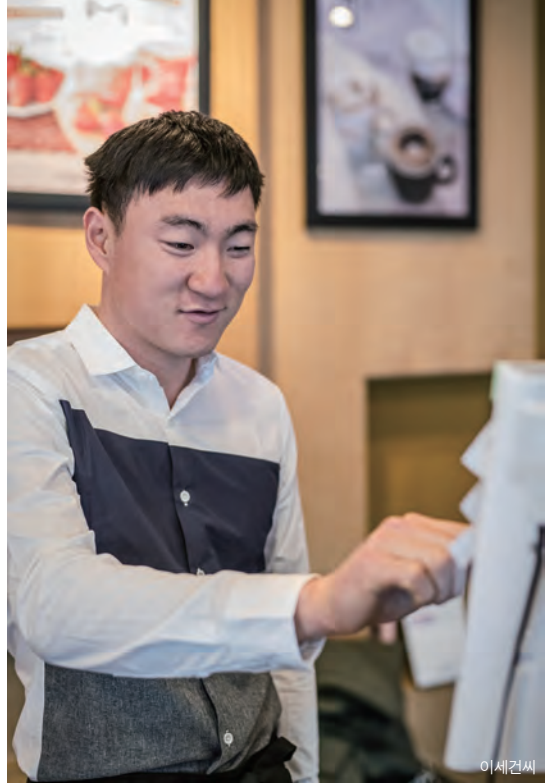
“기부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계속 기부를 하고 싶어요.”

작은 커피콩이 모여 커피 한 잔이 되듯이 기부자 늘었으면

이들은 카페에 나오지 않는 날이면 각자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 만형민수씨는 커피 공부를 더 하고, 세건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부를 한다. 막내 민수씨는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을 익히며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바리스타로서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의 길을 만들며 자립할 능력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취미는 영화 보기이다. 멘토교육원에서 영화를 보러 가는 날이면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렌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설레는 일은 하루하루 커피를 내리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을 기부하는 것이다. 작은 커피콩이 모여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되는 것처럼, 작은 마음들이 모여 누군가의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맛있는 커피처럼 우리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나와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었으면 해요. 기부는 착한 일이잖아요.”



이세건씨



최민수씨

(사)해솔의 포항멘토장애인평생교육원은 바리스타 교육, 성금 기부 등의 사회참여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조립 등의 일자리 사업과 공예수업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해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극소화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집_사랑의열매, 장애인 자립 지원

글 한상현 사진 한준호, 이광재, 공동모금회, 각 기관

꽃보다 그대! 편견 그만! 무대에선 주인공! 장벽을 넘어 자활로 바로 선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자신과 다를 땐 망설임 없이 틀렸다고 말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지 않다.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장애인의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플로리스트 육성 프로그램

인천 우리들의집, 지적장애인들 교육
집중력 뛰어나 기능대회서 입상도



플로리스트 권혜숙 강사
“편견 가졌던 게 부끄럽고
내가 더 배우네요”

권혜숙 플로리스트는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화훼장식을 가르치는 교수다. 그에게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프로그램을 함께 하자고 제안이 왔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였죠. 그런데 시작하고 나니 제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화훼장식을 가르치는 건 전데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다니깐요.”
권 교수는 지적장애인에게 플로리스트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먼저 떨어진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예술가로서 자부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아름다운 꽃을 만지고 향기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적 안정감과 감성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던 분들이 이제 술선수범해서 청소하고 웃으며 포용도 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이제 화훼장식도 수준 높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온 사방이 꽃 천지다. 계절의 시작인 봄이 아름다운 건 꽃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꽃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고귀한 생명 앞에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꽃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곳이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우리들의집(원장 노혜원)’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플로리스트로 육성하는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인천 부평에 있는 우리들의집을 찾아갔다. 지적장애인 4명이 플로리스트 권혜숙 강사의 지도에 따라 오아시스에 꽃을 꽂고 있었다. “경은씨, 꽃을 아 빠그릅과 엄마그릅을 나눠서 꽂아야 해요. 자 이렇게 나눠서 꽂는 거예요.” 권 강사가 시범을 보이자 꽃을 꽂고 리본을 묶고 장식을 하는 과정이 어려워 보이는데도 능숙한 솜씨로 작품을 만들었다.

‘꿈을 만드는 플로리스트 여성시대’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갖게 됐다는 지적장애 2급인 최희진(48)씨는 인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부문 동메달리스트다. 문관숙 우리들의집 복지사는 “희진씨는 첫 수업부터 꽃이 싫다며 수업을 거부했던 분인데 꽃을 다듬고 자신의 노력으로 예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큰 성취감을 갖게 됐다”며 “삶의 의욕 없이 살던 분이 지금은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직업을 갖겠다는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희진씨는 지난해 인천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13명의 지적장애인과 겨뤘을 수상했다. 이 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산업재해로 인한 지적장애인이라 인지능력은 비장애인과 동일하다.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순위 안에 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복지사의 설명이다.



문관숙 복지사는 “대회 수행과제로 나온 재료가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것이 아닌데도 당황하지 않고 작품을 만들었다”며 “심사위원들도 독특하고 창의적인 희진씨 작품을 보고 연회식 장식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칭찬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만든 화훼장식 작품들은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봉사자들에게 선물한다. 1년에 한번 전시회를 열어 화훼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하고, 인천나눔대축제 행사 때 찾아가는 화훼체험교실을 열어 시민들에게 직접 꽃꽂이를 가르치고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이들은 올해 3년 차인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돼 지적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무기력했던 그들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14년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찰과 함께 찾아가던 곳이 바로 신안군이었다. 현장은 참담했다. “노동력 착취 사건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들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이었죠.”

지옥과 같은 곳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갈 곳이 없었다.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있었다. 학대받는 장애인을 찾아내고 그들을 구출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학대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학대와의 전쟁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바뀌고 무기력했던 장애인이 꿈이 생기고 삶의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대와의 전쟁’ 사업

학대받는 장애인들 적극 발굴
보상받게 하고 정신적 치료 도와

지적장애 3급인 김명수(가명·41)씨는 충남 논산의 한 딸기 농장에서 노예처럼 살았다.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컨테이너 박스에서 먹고 자며 딸기 재배와 포장, 딸기 밭을 지키는 경비까지 농장 일을 도맡아 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두 끼만 먹으면서 365일 일했다.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공동모금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진행하는 ‘학대와의 전쟁’ 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례다.



학대받던 김명수씨가 자립 및 취업에 성공해 사원증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도움으로 치과치료와 건강검진을 받은 후 상담과 드라마치료 등으로 불안과 위축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갔다. 또한 장애인권법센터의 법률 지원으로 5,000만 원의 합의금도 받아냈다. 집이 없던 김씨를 위기주거홈(쉼터)에 입소시켜 피해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훈련 또한 지원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음식 재료를 검수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동안 일해서 모은 돈과 자립지원금을 보태 영등포에 작은 방도 얻었다. 이제 김씨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장애인 학대 실태 파악 및 학대 피해자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경기도·경상북도·전라남도 거주 재가 장애인 1,627명의 학대 실태를 조사해 학대 의심 사례 83건을 발굴했다. 또한 학대 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해 273명의 피해 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321명의 장애인 전담 경찰관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으며, 사법 절차를 진행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술지원인도 양성했다.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학대받는 장애인이 학대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자립 후에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은 앞으로 해결할 과제다”라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햇살인형극단

성폭력 피해자들, 목소리로 연기
공연 때마다 수입도 생겨 성취감

성인 여성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학대의 유형은 성폭력이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이 음지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꿈을 갖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성폭력 및 유괴 예방 인형극 공연을 하는 '햇살인형극단'이다. 단원으로 활동하는 한수진(가명·30)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겪은 뒤 극도의 불안 증세와 2차 피해를 호소하던 피해자다.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는 삼성전자의 후원과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햇살인형극단' 인형극에 한씨를 참여시켰다. 성폭력 피해자였지만 아이들에게 성폭력의 문제점을 알리고 어린이 유괴와 같은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인형극 공연을 하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한씨는 극단 활동을 하면서 공연 예술가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공연 수입으로 자립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김민정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갖고 싶은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지 못했다"며 "지금은 좋아하는 카페 라테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 매일 웃고 다닌다"고 했다.

햇살인형극단은 현재 발달장애인 7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립을 위해 햇살인형극단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MBC 아나운서들의 재능기부로 인형극에 맞는 목소리를 녹음해 공연 시 녹음된 음성에 맞춰 인형을 움직이며 연기를 한다. 올해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이동과 분해·조립이 간편한 새로운 무대로 교체해 단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들이 공연을 하는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장애인시설 등이며 연 20회 진행된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앞은 못 봐도 판소리·악기 연주
지난해 국내에서만 116차례 공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악기 연주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인 예술인도 비장애인 예술인과 결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장애인전통예술단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2011년 창단돼 연 평균 60회 이상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뛰어난 예술성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조선시대 시각장애인 연주자를 궁중악사로 채용하는 '관현맹인(管絃



평창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신의현 선수. 아산휠스퍼워너구단 출신이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연수단원인 김지연씨(오른쪽)

盲人)' 제도의 맥을 잇는 전문 예술단이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반영된 복지정책인 관현맹인 제도의 우수한 전통을 되살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알리고 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연수단원인 김지연(21)씨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빛을 전혀 볼 수 없다. 6년 전 어느 날 우연히 점자책 《서편제》를 읽고 여주인공 송화처럼 소리 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판소리를 시작해 2년 만에 수원대학교 국악과에 합격했다. 판소리는 창(소리) 과정뿐 아니라 '너름새' '발림'이라 불리는 동작도 익혀야 한다. 비장애인도 어렵다는 이 과정이 앞 못 보는 김지연씨에게겐 득음 과정보다 더 어려웠다. 희로애락을 표정과 몸짓으로 연기한다는 건 커다란 벽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없이 연습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장애인예술대회 국악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장애인 예술인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지연씨는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마음이 아프고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에게 판소리로 위로해 주고 싶다"고 했다.

한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 신의현 휠체어농구로 시작해서 스키 대표로 노력과 지원이 빛은 '황금빛 세상'

한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 신의현(38) 선수. 그의 금메달이 값진 이유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는 좌절을 극복하고 일어난 인간 승리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7일 열린 평창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작식 부문 7.5km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신 선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터에 나간 느낌으로,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달렸다"고 했다.

충남 공주 출생인 신의현 선수는 2006년 2월 대학 졸업식 전날 당한 교통사고로 나흘 동안 의식을 잃었다. 너무나 큰 사고라 두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 선수는 방향하며 슬로 살았다. 3년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마음 문을 열고 살던 신 선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다. 2009년 10월 우연히 아산휠스파워농구단 주장 윤정문 선수를 만나면서 세상으로 나왔다. 윤정문 선수의 제안으로 시작한 휠체어 농구는 신 선수의 삶을 바꿔놓았다. 이들이 소속된 아산휠스파워농구단은 삼성전자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장애인 재활을 위한 지정기탁사업으로 지체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의현 선수는 휠체어



농구를 하면서 2012년엔 아이스 슬레이지하키, 2014년엔 휠체어사이클에 도전했다. 그리고 2015년 8월 지인의 권유로 스키를 타면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아산시장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휠스파워농구단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을 농구선수로 육성해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2016년 세계휠체어농구선수 Best 5에 들었던 오동석 선수와 실업팀으로 이적한 임동주 선수가 이곳을 거쳐 간 대표적인 선수다.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이적한 선수들은 후배 선수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현재 13명의 선수들이 제2의 신의현 선수가 되기 위해 코트를 누비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관현맹인진통예술단은 지난 한 해 국내에서만 94회 공연을 했다. 전국 맹학교 13개소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전국 70여 개 초·중·고를 찾아 다니며 비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학생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연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시설을 찾아가 공연을 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올해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4월 13일 오후 7시 마포중앙도서관에서 특별공연을 한다. 또한 7월 12일 국립국악원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도 갖는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현지인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동화책 제작·벽화그리기

발달장애청소년 특유의 감성 살려
소통하는 법 배우고 자존감도 높여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기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화무쌍함이 있다. 그래도 부모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청소년들은 기약이 없다.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렵다. 발달장애청소년들의 소통 능력을 키우고 협동심을 높여 자존감을 찾는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BNK금융그룹과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벽화세상의 보물찾기’는 발달장애청소년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고 동네 벽화 그리기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는 지역 소통 프로젝트다.

화명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부산시 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청소년들이 복지관에 모여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글도 쓰고 삽화도 직접 그려 동화책을 만든다. 또한 마을공작소에서 비장애청소년들과 함께 동아리처럼 모여 동네 지도를 만들고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해근(가명·17) 군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성격이 소극적이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어 처음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땐 발표도 하지 않고 친구들 뒤에 가려 있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부터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발표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친구가 화장실 갈 때 먼저 가서 도와주고, 간식 나누는 것도 돕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한다. 이제는 또래 아이들의 든든한 형 역할을 할 정도로 소통 능력이 향상됐다.

하은미 화명종합복지관 과장은 “발달장애인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벽화 그리기 작업을 하면서 협동을 배우고 있다”며 “소통과 교류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 모두가 변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포토뉴스
사진 이신영



찾아가는 장애인사물놀이팀 '땀띠' 신명 나는 연주... "헝! 최고예요"

"이 악기 신기하게 생겼죠. 아프리카에서 온 '칼림바'라고 해요. 누가 한 번 연주해 볼래요?"
"저요! 저요!"

지난 3월 22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드림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장애인사물놀이 '땀띠'의 송경근 음악감독과 함께 재미있는 음악 수업을 하고 있었다. 처음 보는 악기를 신기한 듯 만져보며 즐거워했다. 이어 김수진 음악치료사가 아이들과 함께 음악 워크숍을 했다. 나무로 된 리듬스틱을 두드리며 박자에 맞춰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옆 사람 이름을 부르는 음악놀이다.

어려운 박자가 나오자 박자를 놓치는 아이들이 나왔다.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땀띠'의 공연은 예술 공연의 접근성이 낮은 아동들에게 장애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인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땀띠 단원들을 소개하는 애니메이션이 상영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캐릭터가 4명의 땀띠 단원들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명 나는 땀띠의 사물놀이 공연에 모두들 눈이 동그래졌다. 장애인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프로급 연주 실력이었다. 공연을 관람하던 한 아이는 "장애인 형들도 저렇게 훌륭한 공연을 하는데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라며 공연 소감을 말했다.

방방곡곡 사랑의열매 조형물 지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이웃사랑 증표 담아가세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마다 사랑의열매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귀여운 캐릭터에서부터 여행을 하다 잠시 앉아 쉬 수 있는 벤치 형태까지 모양도 다양하다.
 나눔의 상징 빨간색 '사랑의열매'를 찾아보자.

1

서울1호 착한마을 개봉2동



위치 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개봉역
특징 서울에 사랑의열매 조형물이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다. 개봉역 앞에 있는 조형물에는 착한가게 위치 등 개봉2동의 나눔 지도가 그려져 있다.

2

서울 대표 관광지 남산공원



위치 서울시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특징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남산공원에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열매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 2월 설치된 조형물은 열쇠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사랑의열쇠' 앞에 있다.

3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갈대광장



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갈대광장공원 내
특징 예술인들이 모여 사는 헤이리예술마을에 사랑의열매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빨간색 하트 모양의 구조물에 앉을 수 있도록 벤치 형태로 만들어졌다.

7

도자기의 요람 설봉공원



위치 경기 이천시 관고동 설봉공원 내
특징 도자기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설봉공원에 사랑의열매 조형물이 있다. 설봉저수지를 중심으로 친환경공원이 조성돼 있고 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다.

8

사계절 내내 겨울 원마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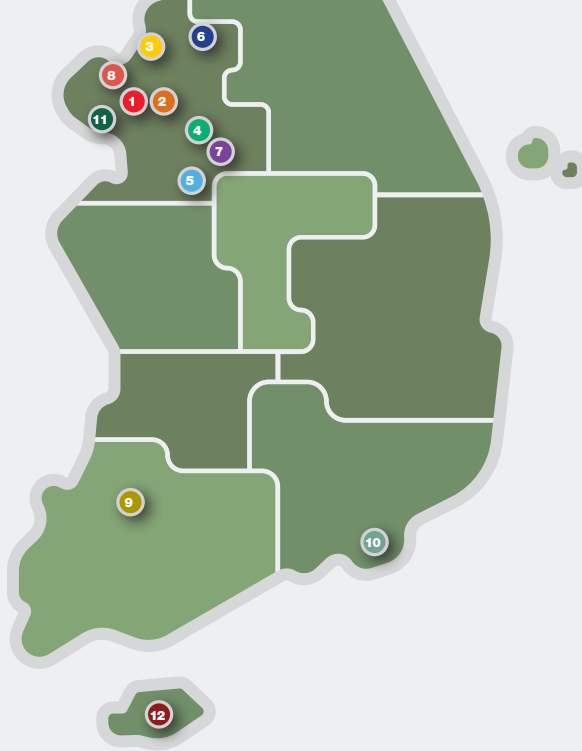
위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원마운트 앞
특징 사계절 내내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원마운트 테마파크 건물 앞에 귀여운 캐릭터가 사랑의열매를 들고 서 있다. 인근에 아쿠아플라넷, 일산호수공원이 있다.

9

광주 착한마을 상무동 착한거리



위치 광주시 서구 상무1동
특징 광주 최초로 조성된 착한마을 입구에 있다. 사랑의열매 조형물은 빨간색 커다란 하트 모양에 작은 하트가 하나 더 있다.



4

물이 모이는 팔당물안개공원



위치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팔당물안개공원 내

특징 팔당호 인근에 귀여섬으로 불리던 곳을 주민들의 휴식처로 꾸며 놓은 팔당물안개공원에 사랑의 열매 조형물이 있다. 자전거길이 잘 조성돼 있어 나들이 장소로 좋다.

5

즐거은 체험목장 안성팜랜드



위치 경기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안성팜랜드 내

특징 동물들을 직접 만지고 먹이 주며 즐기는 체험목장 안성팜랜드 내에 조형물이 있다. 벤치 형태로 되어 있어 앉아 쉬면서 농장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좋다.

6

봄 향기 가득한 허브아일랜드



위치 경기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35

특징 봄꽃 만발하고 허브 향기 가득한 허브아일랜드 속 사랑의열매 조형물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조성됐다. 관광지라 주변 볼거리도 풍부하다.

10

부산의 나눔 명소 명륜1번가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97 명륜1번가

특징 나눔천사들이 모여 사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사랑의열매 조형물이 세워졌다. 부산 최초 착한가게거리로 선정된 이곳의 조형물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11

짜장면의 고향 인천차이나타운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41

특징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조형물이 서 있다. 귀여운 캐릭터가 오른손에는 짜장면을 왼손에는 사랑의열매를 들고 있다.

12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입구

특징 연 300만 명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성산일출봉 초입에 조형물이 있다.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해도 좋다.

“지역모금에 날개를 단다” 화성시청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사랑의열매와 함께 나눔문화 확산 노력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월 2일 화성시청에서 ‘화성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조성 및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화성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화성시가 함께 뜻을 모아 지역 내 기부자들의 예우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강학봉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화성시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이수형 (주)아시아베스트 대표, 이동수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 5년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한 박화자 기부자 등이 참석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 조성을 축하했다. 또한 이수형 (주)아시아베스트 대표의 기부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인사말에서 채인석 화성시장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들이 모범시민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시스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와 지역모금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고 명예의 전당 조성을 추진했다. ‘지역복지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조성된 화성시 명예의 전당은 아트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조성된 명예의 전당에는 연 평균 1,000만 원 이상 또는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천한 기업, 연 평균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개인·단체 기부자의 명단이 기재된다. 현재 100만 원 이상 기부한 개인이나 단체 49곳과 1,000만 원 이상 기업 114곳이 명예의 전당에 기재돼 있다. 앞으로 지역 내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 가입식 및 기부금 전달식 장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함께 나누니 더 행복해요”



하늘 나라로 떠난 여보... 당신 뜻대로 기부했어요!

보고 싶은 당신, 그곳은 어머신가? 거기서는 안 아프고 잘 있는가? 자녀가 이렇게 훌쩍 떠나고 나니 애석한 마음 크네. 나 만나서 고생만 한 당신에게 이제 편히 쉬라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구려.

후두암, 간암, 폐암, 갑상선암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던 당신. 그 어려운 수술만 다섯 번을 했지. 당뇨합병증으로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야 할 때는 내 맘이 갈기갈기 찢어졌었네. 대소변도 못 가리고 혼자 밥도 못 먹는 자네를 20년 넘게 병수발을 해왔지만 원망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네.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소. 젊어 벌여놓은 재산 다 팔아 병원비에 쏟아 넣을지언정 당신 살리는 일이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네.



자네가 하늘나라로 가기 3일 전 나를 불러 나지막이 말했었지. '나 죽으면 장롱 속 한복 저고리에 돈이 있으니 어려운 이웃 돕는데 써주세요.' 그때 당신한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호통을 쳤던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네. 그땐 빨리 회복해 같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오. 이해해 주시게.

당신을 떠나보내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한복을 발견했지. 유언 같은 당신 말이 생각 나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하고 1만 원짜리 10장이 나오더구만. 마음씨 곱던 당신이 떠올라 왈칵 눈물이 쏟아져 한참을 울었네. 근데 1만 원짜리가 전부 구(舊)권이더구만. 2007년 신권이 나왔으니 10년이 더 된 돈 아닌가. 월급 넉넉히 가져다 준 적 없는데 언제 이 많은 돈을 모았는가. 휴지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는 당신의 알뜰함을 알기에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만들었는지 짐작이 가네. 있는 사람에겐 큰돈 아니겠지만 자네에겐 1억, 아니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소. 입을 것 먹을 것 참아가며 모았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

당신 곁으로 가기에 앞서 부끄러운 얘기 하나 고백하겠네. 그 돈이 자꾸 욕심나서 자네 떠나보내고 3년을 가지고 있었소. 나도 방광암 수술 받고 소변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장애인이니 약값이 좀 많이 드는가. 그래서 살림에 보태면 좋겠다 싶었지. 그런데 자네 얼굴이 아른거려 도저히 쓸 수가 없었네.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지. 내 형편 어렵다고 자네 마지막 유언인데 이걸 쓰면 되겠는가. 고민 고민하다 작년 7월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10만 원과 내가 모아둔 동전 2만 6,800원을 기부했네. 속이 시원하더구만. 진작 할 걸 그랬어. 공동모금회 사람이 그러데, 모금회에서 받은 기부금 중 가장 가치 있고 큰돈이라고. 당신 덕에 내가 칭찬을 받았소. 방송에도 소개돼 출연료를 조금 받았는데 그것도 복지관에 기부를 했지.

당신에게 칭찬받을 일이 또 있소. 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지만 밥은 복지관에서 먹으니 밥값 안 들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 아껴 이웃들을 돕고 있소. 당신이 유언으로 남긴 나눔을 작게라도 실천하고 싶었소. 나 잘했지요. 보고 싶소. 사랑하오. ❀



좋은미래를 위해 꿈과 희망을 채우다

청소년들을 위한 즐거운 화학 교육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에너지 생산, 지역을 위한 환경 보호까지. 국내 대표 화학기업인 LG화학은 건강한 지역사회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청소년 교육과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집중해서 펼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흘리고 있는 아름다운 땀방울을 만나봤다.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LG화학은 PVC, 아크릴과 같은 기초소재 사업부터 모바일 전자와 자동차 전지를 생산하는 전지사업, 디스플레이재료, LCD편광판 등의 정보전자소재 및 재료 사업, 백신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생명과학 사업까지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LG그룹의 계열사다. LG화학은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LG'라는 LG그룹의 사회공헌 정책과 화학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9월 대외협력담당 산하에 CSR 팀을 신설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글로벌 수준의 CSR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LG화학이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분야는 화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교육' 사업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문 시행 기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LG화학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열심이다. 이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외부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만들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미있는 화학놀이터

4가지 체험존, 화학 매직쇼 체험 통해
초등생들에게 미래 과학자의 꿈 설계

지난해 11월 7일 LG화학 나주공장 주변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밝고, 즐거운 웃음으로 가득했다. '우와~'와 같은 감탄사도 수시로 이어졌다. LG화학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함께하는 체험형 사회공헌활동 '내가 만드는 세상, 재미있는 화학놀이터'를 위해 나주 영산포 초등학교 학생들을 찾아간 것이다. 이날 아이들은 학교 강당에 마련된 LG화학존, 라이프존, 에너지존, 글로벌 시민교육존, 화학 매직쇼 체험관을 통해 교과와 연계한 화학과 환경, 에너지 등의 다양한 주제를 직접 실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체험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아이들은 새로운 수업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흥미진진하게 참여했다. 아이들은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실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이해하고, 고흡수성수지와 천연오일을 활용한 벌레 쫓는 방향제를 만들며 신기해했다. 교과서나 책 속에서 글자로 배우는 딱딱한 과학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재밌게 풀어낸 수업은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북돋워 주는 귀한 선물이었다.



이날 화학놀이터 수업과 함께 지구촌 친구들을 위한 에코노트를 제작하는 글로벌 시민교육 체험도 이어졌다. 아이들은 학용품이 부족한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환경의 소중함과 함께 나눔의 가치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500명 참여... 만족도는 91.33%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초등학교 1,500명이 앞에서 설명한 '내가 만드는 세상, 재미있는 화학놀이터'라는 특별한 교육 선물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LG화학이 LG그룹의 사회공헌 정책과 화학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교육' 사업 중 하나다.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고, 기초과학 분야의 지식 습득과 학습 관심을 높여 미래 과학 꿈나무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 LG화학의 노력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 참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프로그램 평균 만족도 91.33%라는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평소 어려웠던 화학에 대한 호감도가 65.56%p 상승했으며, 재참여 의지도 79.96%로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 그전의 행사 이야기를 듣고 신청한 학교가 많았다.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

중학생 대상 화학 심화 학습

14년간 약 60회 진행... 6,800여 명 참가

LG화학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청소년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화학캠프는 방학 동안 중학교 아이들을 초대해 2박 3일간 진행되는 화학체험 캠프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화학놀이터보다 심화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중학교 교과 과정 및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고, 실험과 체험으로 과학을 체득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를 통해 아이들은 화학과 과학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고,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다.

LG화학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59회의 화학캠프를 열어 약 6,800여 명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방학을 선물해 왔다. 여수, 대산, 오창, 니주, 대전, 익산 등 전국의 LG화학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과학에 관심과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입었다.

실제로 중학교 아이들에게 화학은 대하기 힘든 과목 중 하나다. 초등학교 때보다 확연하게 교과 내용이 어려워진 데다, 이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학캠프에서 만난 아이들은 달랐다.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가하고, 결과에 감탄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즐거워해 캠프가 화학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희망 Green 발전소 만들어 발전수익금으로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LG화학은 지난 2017년 아주 특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사)에너지나눔과평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인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및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서울 시내 아동·청소년과 성동구 및 동대문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제공한 공공부지(중랑물재생센터)에 태양광 발전 기반의 '희망 Green 발전소'를 올해까지 완공한 다음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해 수익금을 청소년의 교육복지(장학금 등)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약 4,250평(14,000㎡) 부지에 발전용량 620kW급의 시설 설치로 하루 약 2,100kWh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4인 기준 200여 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6,200만 원의 발전기금이 20년간 마련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성동구 및 동대문구를 포함한 서울 시내 아동·청소년에게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370tCO₂의 탄소배출량이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는 20년산 소나무(1그루당 3kgCO₂/년 흡수) 12만 그루 이상을 심는 것과 효과가 동일하다.

프로젝트의 또 다른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은 청소년 복지시설 및 에너지 취약시설 옥상에 녹화나 단열재 설치를 하는 작업이다. 건물의 복사열을 차단하면 여름과 겨울 냉·난방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크다. 환경 및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이브리드형 사회공헌 모델인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 단순히 일회성 물품 지원이 아닌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LG화학은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본 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옴은미래, LG화학이 그리는 Green 세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Green Maker 출범
임직원 참여, 밤섬 환경보존 활동 동참

여의도 개발을 위한 폭파로 밤섬은 대부분이 사라졌다. 이후 한강 퇴적물이 오랜 시간 쌓이고 여기에 1988년 LG그룹에서 갈대·갯버들·버들강아지·짚레 등 5만 8,000포기의 식물을 심어 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생명의

섬으로 재탄생했다. 1999년에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십 속 철새 도래지로 사랑받게 됐지만, 현재 다양한 환경오염 위협에 노출된 상태다. LG화학은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 UN이 지정한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과 연계해 여의도 밤섬 지킴이 봉사단 Green Maker를 출범했다. '옴은미래, LG화학이 그리는 Green 세상'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진행된 밤섬 지킴이 봉사활동은 LG화학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함께 기획한 신규 사회공헌활동이다.



박진수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여한 봉사단은 밤섬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체계적인 환경보존 활동에 동참했다. 봄과 여름에는 지나친 번식력으로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가시박'을 비롯한 위해식물의 뿌리를 뽑고, 가을과 겨울에는 섬에 쌓이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정화작업을 벌였다. LG화학은 향후 생물다양성 관련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해 진행할 예정이다.



LG소셜캠퍼스

친환경 사회적 기업 발굴·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LG화학은 '옴은미래'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조직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플랫폼 'LG소셜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LG화학과 LG전자가 매년 기금을 출자해 친환경 분야의 경제 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 및 무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성장 가능성과 공익성, 혁신성이 높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해 교육, 네트워킹 워크숍,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기업들의 초기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친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성공모델 발굴과 육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효과적 자원 연계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LG화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 세대를 위한 혁신을 넘어,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삶을 향한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해외법인 사회공헌

현지 청소년과 환경보호·지역사회 위해
귀향 학생 지원... 학교 시설 개선, 축구교실

세계 곳곳에 위치한 LG화학 해외법인 중 최근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중국 법인이다. 중국 지역총괄 법인(LGCC)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랑 사업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호 사업, 현지 정부와 주민을 지

원하는 지역사회 공헌을 실현 중이다. 대표적인 활동이 지난해부터 중국 CCI법인이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중국대학생 자동차 전지 혁신 Contest'다. 자동차 전지 및 소재 분야의 우수 젊은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건전 발전을 통해 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대표적인 청소년 지원 사업 우수(留守)아동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도 상당하다. 우수아동이란 외지로 일하러 간 부모와 떨어져 시골에 남겨진 아이들을 뜻한다. 1년에 2번 베이징 대학생들이 여름과 겨울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귀성할 때 농촌의 우수아동을 위한 사랑의 행낭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학교 프로젝트에 대한 호응도 좋다. LGCCI는 2007년부터 환경보호부의 지원하에 중국의 빈곤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켜 왔다. 또한 도서관 건설, 화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 중국 법인에서도 농민공학교 자매결연, 축구교실, 외지 노동자 자녀학교 지원, 복지센터 시설 개선 등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 중이다.

一社一山, 一社一河 등 환경보호 앞장도

LG화학은 중국의 환경오염 줄이기에 앞장서는 등 지역의 환경보호에도 힘을 더하고 있다. 중국 법인 전체적으로 일사일산(一社一山) 프로젝트를 펼쳐 산에 나무를 심고 있으며, LGCYX는 일사일하(一社一河)를 목표로 강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LGCNJ도 공창청산록수(共創青山綠水)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난징 쑤진산(紫金山)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다른 지역의 중국 법인에서도 자연사랑 걷기 대회, 마라톤 경기, 금혼 부부 웨딩사진 촬영, 노인원 위문, 지역 교통 경찰 위문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 돌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LG화학 중국 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은 중국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석유화학기업(Top10) CSR 평가에서는 2017년부터 2위를 유지할 정도로 호평을 얻었다.

그 외 해외법인의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 법인(LGCM)에서는 지역 축제인 홀랜드 빛의 축제와 노동절 트럭 퍼레이드를 후원하고 있으며, 현지 직원들이 지역 행사에 함께 참여해 지역 시민과의 유대감을 돈독히 다지고 있다. 폴란드 법인(LGCE WR)은 지역 내 장애인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자선단체와 함께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하며 지속성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착한일터_삼성바이오에피스

글 김가린 사진 장은주



내가 만든 물건으로 상생 ‘핸즈온 재능기부’로 통하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시작한 기부의 효과는 수혜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착한일터 기부를 실천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은 나눔을 통해 이웃의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보살피며,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는 행복을 깨닫고 있다.

임직원 85% 참여... 지난해 9,200만 원 전달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가까워 오면서 세계 경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바이오 산업이다. 국내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는데 이곳은 전 세계의 환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을 접할 수 있고,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 때문인지 이곳의 직원들은 나눔활동에도 특히 적극적이다. 인천 공동모금회와 함께 2013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사랑의 연탄 지원과 아동보육시설에 건강검진이나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활동비 중 일부는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기부로 모인다. 800여 명에 달하는 전 직원 가운데 85%가 급여 중 일부를 정기기부하고 있고 그중 일정금액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 2017년 공동모금회에 전달된 금액만 9,200여만 원. 주로 지역사회의 아동이나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 겨울철 연탄 나눔 봉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데 사용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이벤트 보다는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하는 인사업 조수지 전문에 따르면 바쁜 일정 등으로 외부 봉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핸즈온(Hands-on)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봉사자가 기부 물품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나눔의 한 방법이다.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시간을 낸다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봉사자도 성취감이 높아진다. 핸드온 재능기부의 경우 임직원뿐 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동참할 수 있다. 사랑나눔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두의 추억 속에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때 더 큰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손수 만든 비누에 담긴 사랑

“업무 특성상 질병 예방에 관심이 많은데, 핸드메이드 비누 키트를 나눠주고 직원들이 직접 만든 비누를 기부하기도 했어요. 수혜자들에게는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면서도, 생활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니 뿌듯함은 배가 돼요. 직원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뜻깊은 추억이 하나 더 생기게 되니 일석이조예요.”

해외에서의 잇따른 판매 허가를 승인받는 등 승승장구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소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들썩이게 한다. 그때마다 이들은 기업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이라 강조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올해 나눔 목표는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수혜자들을 찾아 다가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임직원이 늘고 기부금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춰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나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기관들과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 공동모금회와의 협력 같은 협업이 필요하다. 기부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기부금의 사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니 직원들 사이에 만족도가 높고 믿음도 두터워지고 있다.

“기부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막상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죠. 공동모금회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직원들은 쉽고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으니, 착한일터 기부를 실천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고 있고 있어요. 정기기부액을 늘리겠다는 직원들도 있고요.”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는 2017년 인천공동모금회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심리치료 지원으로 마음까지 보살피기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기부금이 의미 있게 사용되다 보니 직원들은 스스로의 기부활동에 큰 자긍심을 갖게 됐다. 이런 변화는 사회와 기업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업무 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뿌듯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끈끈한 애정을 쌓는다. 공동체 의식이나 사명감이 커지면 각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좋다. 실제 직원들은 봉사활동을 계기로 이야기의 물꼬가 트이고, 업무 교류 시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등 조직 내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공동모금회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은 나눔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정립 중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보육시설 내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직원은 생활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보살펴야 진정한 사랑나눔임을 깨달았다.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의욕이 크기에, 현명하고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나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직원 모두 자신의 기부 활동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새로운 나눔을 시작해 볼 용기가 생기는 것도 부담 없이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기부가 일상의 한 부분이 된다면 다가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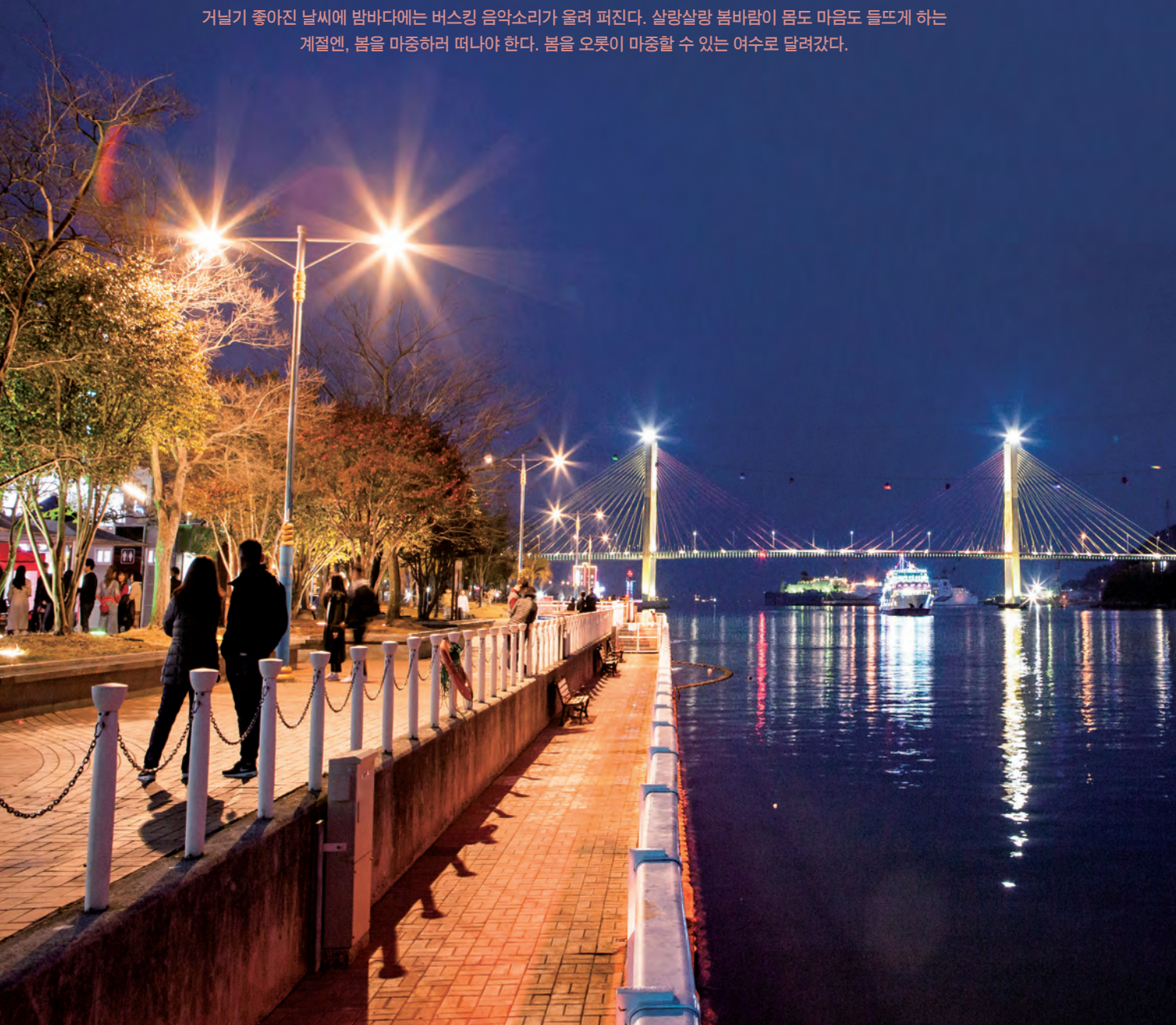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_전남 여수

글 사진 조혜원(여행작가)

여수 밤바다[♪] 아니 여수 봄바다

남도의 봄바람에는 온화함과 설렘이 섞여 있다. 봄꽃이 먼저 꽃망울을 틔우고, 얇은 겉옷만 있으면 거닐기 좋아진 날씨에 밤바다에는 버스킹 음악소리가 울려 퍼진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몸도 마음도 들뜨게 하는 계절엔, 봄을 마중하러 떠나야 한다. 봄을 오롯이 마중할 수 있는 여수로 달려갔다.





2

싱싱한 해산물의 향연 착한가게 정가네 생선구이

기분 좋게 해안선을 따라 달리다 보면 오른쪽엔 거북선대교, 왼쪽엔 돌산대교, 정면엔 고소동 천사 벽화골목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자리에 '정가네 생선구이'가 있다. 정미경 사장은 2011년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이 닿아, 사랑의열매 온도탑의 온도 올리기 봉사활동을 2년이나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기부를 시작해 2014년엔 착한가게가 됐다.

"기부를 시작한 후로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손님들이 입구에 걸려 있는 착한가게 간판을 찍어 개인 블로그에 올려주니 자연스럽게 홍보도 된다. 사랑의열매 배지가 포인트로 달린 모자와 캐주얼하게 맞춰 입은 옷 덕분에 발랄하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진다.

정가네 생선구이에서 생선구이 정식을 주문하면, 여수가 한상 가득 차려진다. 고등어, 갈치, 능성어, 서대 등 계절에 따라 바뀌는 다섯 종류의 생선과 맛과 정성이 가득한 밑반찬이 상을 가득 채운다. 고춧가루부터 모든 재료가 국내산인 갖김치, 간장부터 직접 만드는 간장계장, 방풍나물을 갈아 가루로 뿌려 만든 방풍김까지 대부분의 음식을 다 직접 만든다. 생선구이점뿐 아니라 '정가네 푸드' 사업도 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생선구이와 계장을 먹으러 왔다가 양손 가득 나가는 손님이 많다. 여수가 고향인 정미경 사장은 홍보대사처럼 여수 자랑을 늘어놓는다. 꼭 가보라고 일러준 곳만 엮어도 하루가 팍 찰 듯하다.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해상케이블카

제일 먼저, 정가네 생선구이 바로 뒤에 있는 여수 케이블카를 타러 간다. 여수 케이블카를 타려면 돌산공원에 올라야 한다. 작은 공원이지만 돌산대교부터 여수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케이블카를 타기 전 돌산공원을 산책하듯 둘러보면 여수 주요 관광지를 조망하며 여행 동선을 짜기에 좋다. 돌산공원에서 바라보는 여수 풍경은 낮에도, 밤에도 아름다워 케이블카 관람권을 왕복으로 구매해 구경하면 여수 여행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수 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의 특별한 점은 바로 바닥이 강화유리로 제작된 크리스탈캐빈이다.

메인 여수 밤바다 야경. 여수대교 아래로 국내 최대 규모의 연안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있다.
 1 정가네 생선구이 생선구이 정식
 2 착한가게 정가네 생선구이 정미경 사장



2



3



4



- 1 여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돌산공원 전망대
- 2 돌산공원에서 시작되는 여수케이블카는 꼭 타봐야 할 여행코스다.
- 3 여수 밤바다의 낭만 대명사 낭만포차거리
- 4 여수 고소동에는 벽화길이가 1,004m라서 이름 붙여진 천사골목이 있다.
- 5 여수 오동도를 가려면 자전거는 필수

여행정보

정가네 생선구이

주소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68 2층
문의 061-642-5008
운영시간 10:00~22:00
가격 생선정식(1인) 1만 5,000원

오동도

주소 전남 여수시 수정동 산1-11
문의 061-659-1819
운영시간 연중무휴
이용요금 무료

고소동 천사벽화마을

주소 전남 여수시 종화동 1201
연락처 061-659-4552

낭만포차

주소 전남 여수시 중앙동 246-1
운영시간 18:00~02:00

미남크루즈

주소 전남 여수시 엑스포대로 320-66
문의 061-641-1000
운영시간 17:30~19:00
이용요금 대인 1만 7,900원, 청소년 및
경로 1만 5,300원, 소인 9,900원

바다를 가로지르며 양옆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는 것도 짜릿한데, 바닥이 투명하니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케이블카는 바다 위를 유유히 날아 오동도 입구로 연결된다.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꽃 활짝 오동도

동백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오동도는 남도의 봄기운을 느끼기 가장 좋은 곳이다. 양옆으로 바다가 펼쳐지는 긴 방파제 다리를 건너면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오동도에 닿는다. 오동도를 둘러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천천히 걸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동백열차를 타면 된다. 대부분 동백열차를 탑승하지만 바람이 좋은 봄에는 자전거를 추천한다. 페달을 힘껏 밟으면 바닷바람이 기분 좋게 온몸을 휘감아 지나간다. 자전거는 오동도 입구 주차장에 있는 대여가게나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무인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걸기에는 조금 길다고 느껴지는 다리를 건너 동백숲 아래 자전거를 두고 숲으로 향한다. 오동도는 동백나무 3,600여 그루가 있는 전국 최대 군락지다. 아쉽게도 올해 한파가 늦게까지 이어진 까닭에 한창 동백이 만개할 즈음인데도 꽃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동백나무뿐 아니라 참식나무, 후박나무, 이대, 시누대, 팽나무 등 다양한 종의 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미묘하게 변하는 풍경이 마치 커다란 야외 나무 박물관에 와 있는 듯하다.

숲에서 내려와 음악에 맞춰 율동하는 분수대로 향한다. 오동도는 작은 섬이지만 오밀조밀 볼거리가 많다. 분수쇼를 보고 오동도 가장 끝자락에 있는 등대까지 갔다 오면 섬 구경이 끝난다.

바다를 풍경 삼아 커피 한 잔 고소동 천사 벽화마을

오동도에서 나와 자전거를 반납하고 고소동 천사벽화마을로 향한다. 이곳에선 아기자기한 마을과 분위기 좋은 카페,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을 한번에 누릴 수 있다. 진남관부터 여수 해양공원까지 이어지는 벽화마을의 길이가 1,004m라 천사벽화골목으로 불린다. 고향이 여수인 만화가 허영만의 작품이 담벼락마다 그려져 있다. 만화의 그림과 마을의 일상이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만든다. 골목을 기웃거리며 오르다 보면 어느새 시야가 탁 트이면서 바다와 분주히 향을 드나드는 배가 장난감처럼 보일 만큼 높은 곳에 닿는다. 고소동엔 풍경이 좋다 싶은 곳엔 대부분 카페가 자리한다. 옥상 야외 테이블과 하얀 천이 바람에 날리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곳도 있고, 바다를 향해 놓인 의자가 매력적인 곳도 있다. 어디든 잠시 쉬어가며 느린 봄바람과 바다를 눈에 담기 좋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여수 밤바다의 낭만포차

고소동 벽화마을에서 골목을 누비다 해가 뉘엿뉘엿할 즈음이 되면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낭만포차거리로 내려온다. 양옆으로 돌산대교와 거북대교에 조명이 켜지고, 파도가 잔잔하게 만주를 하고 곳곳에서 재주 많은 이들이 낭만을 노래한다. 술 한 잔 기울이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이 있을까. 여수의 밤바다를 낭만의 대명사로 만든 노래가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포장마차의 메뉴도 다양하다. 제철을 맞은 새조개 사브사브부터 소갈비 찜까지, 일반적인 포장마차에서 먹던 메뉴가 아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중년 부부, 갓 연애를 시작한 듯한 풋풋한 어린 커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다.

여수 밤바다를 좀 더 깊이 느끼고 싶다면, 엑스포 스카이트워 앞에서 출발해 거북선대교 아래를 지나 돌산대교를 돌아오는 크루즈에 올라보자. 여수 밤바다의 야경은 어디서나 아름답지만, 바다 한가운데에 떠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풍경은 또 다른 모습이다. 대교의 조명이 바다 위로 반사돼 거대한 웅단 위를 미끄러져 지나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안크루즈 선상에선 라이브공연이 열리고,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는 이들로 들뜬 봄밤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

동네환경 바꿨더니 행복열매 주렁주렁

2년 전만 해도 경북 안동시 옥동2단지에는 택시도 들어가기를 꺼리던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곳곳이 꽃 단지가 됐다. 술병이 텅굴던 단지 내 공터는 주민들의 놀이공간으로 변했다. 삼성전자의 후원과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동네 환경을 개선하는 ‘우리동네 복지 행복디자인사업’을 통해 동네가 바뀌고 있다.



안동시 옥동2단지 ‘행복디자인사업’이 준 변화

주거지 주변 환경이 변하면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에 대한 인식까지 개선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경북 안동시 옥동2단지는 지역 내 기피지역이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일부 거주민들이 매일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에 노상방뇨 등 무질서한 생활을 지속해 주변 지역과의 소통이 단절됐었다. 모두가 사용하는 단지 내 정자와 벤치에는 항상 술병이 굴러다녔다.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이들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술로 하루를 시작해 술로 마무리하는 이곳이 변하기 시작했다.

공동모금회가 지원한 ‘우리동네 복지 행복디자인사업’을 통해 2단지 주변 환경 미화 활동과 주민들 간 소통을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동네로 바뀌고 있다.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옥동2단지 주민들을 설득해 동네 환경개선 활동을 시작했다. 화단에 나무와 봄꽃을 심었다. 페타이어에 화사한 색깔의 페인트를 칠해 꽃밭을 만들었고 산책로를 정비해 기억물레길이라고 이름 붙였다. 쓰레기 투기 방지 스티커를 붙이고, 불법 주차된 차량에는 노란풍선을 달아주었다.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단지 내 정자와 주민쉼터, 아파트 복도도 깨끗하게 청소했다.

2단지 내 주변 환경만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마을의 리더를 양성해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교육을 동시에 진행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찾아가 우수한 환경개선 사례를 둘러보기도 하고, 동네 정담회를 만들어 마을의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으로 해결해 나갔다. 또한 기회가 되면 복지관 앞 놀이터에 걸린 대형가마솥을 이용해 소머리국밥을 끓여 동네 잔치를 열기도 했다. 여름엔 옥수수나 감자를 삶아 이웃과 나누기도 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정도 깊어 갔다.

놀이 프로젝트 · 수다벽스 커피 · 라면 영화제 등

옥동2단지 내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행사들도 풍성했다. ‘ON NA(온나) 동네에서 노을자’ 프로젝트로 단지 내에 대형 물놀이장을 만들어 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행사도 있었다. 아침이면 옥동2단지에는 커피향이 가득하다. 매주 월·수·금요일 아침마다 커피와 모닝빵을 나눠주며 아침 인사를 하니 자연스럽게 주민 간의 교류가 이뤄졌다. 행사 이름도 ‘우리 동네 수다벽스’다. 말로 하는 버스킹도 호응도가 높았다. 마을 정자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누구나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인사만 나누던 이웃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버스킹이 멈추는



시간엔 바둑과 장기를 두거나 국궁과 투호를 결합한 한국 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바람 선선한 가을에는 영화제도 열었다. 그러나 무료는 아니다. 관람료는 '라면 1봉지'다. 영화제 이름도 '우리 함께 라면영화제'다. 주민이 모두 함께하면 좋겠다는 의미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라면을 합쳐 중의적 표현으로 이름 붙였다고 한다. 라면 1봉지를 들고 와 영화도 보고 모인 라면은 옥동 주변지역 경찰서, 소방서 등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전해 나눔도 실천하는 1석2조의 행사였다. 아이엠 산타 음악회를 개최해 관람료 500원을 모아 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나눔행사를 통해 항상 도움만 받던 주민들도 직접 라면이나 성금을 전달하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에 뿌듯해하기도 했다.

지역 자립을 위한 사업도 진행했다. 가족끼리 밥 한 끼를 먹으면 100원짜리 동전을 돼지저금통에 넣는 '백돼지 분양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750만 2,067원을 모아 동네발전기금으로 적립했다. 올해는 우리동네 이웃집밥, 양심우산, 가미술싸롱 등 '이웃끼리 밥 한 번 먹기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곳으로”

송덕희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우리동네 복지 행복디자인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송덕희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은 하루하루 동네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송 과장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동네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했더니 동네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며 “공용공간의 기능이 회복되니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송 과장은 이번 사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로 ‘우리동네 바캉스’를 꼽았다. 송 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분들을 보니 안타까웠다”며 “지역 업체의 도움으로 대형 에어바운스 풀장을 설치해 주민들이 5일간 물놀이를 하며 특별한 여름휴가를 보냈던 것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다”고 했다. 올해 사업 2년 차를 맞아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 송 과장은 “올해는 환경이 개선된 동네를 주민들의 힘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 Page

글 이일섭 사진 김경진

발레 <지젤>에서 깨닫는 사랑과 희생 사랑은 곧 나눔입니다

순수한 시골처녀 지젤의 사랑을 조롱한 귀족의 후예 알브레히트. 지젤은 한순간 알브레히트를 원망하지만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윌리들(사랑하는 남자의 배신에 의해 죽은 처녀 영혼)의 복수로부터 그를 구한다. 지젤의 발레 모션에서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찾아본다.



발레가 좋은 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우들도 보통의 일반인에 못지않은 감상과 향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용수의 섬세한 표정과 아름다운 손짓 그리고 기민한 허슬을 통해 스토리의 전개와 내면의 갈등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니버설발레단의 2018년도 첫 정기공연인 <지젤>은 연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하는 사랑의 위대함을 전하며 남녀 간의 사랑에도 '나눔'이 존재해야만 깊은 사랑으로 승화할 수 있음을 전한다. 물론 사랑이 곧 나눔이고 나눔이 곧 사랑이지만 자신을 버리면서 사랑을 지켜내는 일은 참으로 송고한 나눔이며 최고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연인의 목숨을 지켜내려는 지젤

총 2막으로 구성된 <지젤>은 귀족 알브레히트를 사랑한 순박한 시골처녀 지젤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포도 축제가 벌어지는 라인 강변 마을이 배경인 1막에서 지젤은 신분을 숨긴 귀족 알브레히트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지젤을 짝사랑하던 사냥꾼 힐라리온은 질투심에 못 이겨 마을을 찾은 영주 일행 앞에서 알브레히트의 정체를 밝힌다. 더욱이 영주의 딸이 알브레히트의 약혼녀임을 알게 된 지젤은 거짓된 사랑에 절망하며 돌연 죽음을 맞게 된다.

2막에서의 지젤은 이제 남성들의 목숨을 빼앗는 율리(Wili, 사랑하는 남자의 배신에 의해 죽은 처녀 영혼)가 되고 만다. 하지만 힐라리온이 율리들의 포로가 되어 죽는 것과 달리 알브레히트는 지젤의 사랑 덕분에 목숨을 구한다. 율리들은 춤의 제물인 힐라리온이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으며 춤을 추게 한다. 하지만 알브레히트의 진심을 알게 된 지젤은 그에 대한 원망을 접어두고 율리들에게 그를 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심지어 한때 사랑했던 그를 죽음 저 너머로 끌어들이 수 없어 차라리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라도 연인의 목숨을 지켜내고자 한다.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에게도 발레 <지젤>은 유독 애정이 큰 작품이다. 그녀의 이름 앞에 '영원한 지젤'이라는 푸른 면류관을 씌워준 작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작품은 결혼 직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영혼결혼식을 올린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한 작품이다.

유니버설발레단, 4월 15일까지 공연

죽어 혼령이 된 지젤이 자신의 무덤을 찾은 알브레히트와 춤추는 장면을 연기할 때면 함께 살아보지도 못하고 작별한 남편을 떠올리게 된다. 신앙의 힘으로 시작도 못한 사랑을 완성하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때로 교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지만 중국엔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고 <지젤>은 그런 결론을 내리는 데 힘을 보탠 작품이다. 남편을 생각하면서 페잔트 파드되(Peasant Pas de Deux)를 춤추는



동안 자신의 비극적인 사랑이 슬프지만 따스한 로맨스라는 걸 확실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발레는 삶이 절박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 고기 한 조각도 못 되는 존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젤의 참사랑은 헐벗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돼준다. 자신을 반은 장난으로 사랑했던 남자의 무책임함에 좌절하고 결국 그 슬픔에 못 이겨 죽게 되지만 알브레히트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남기며 그녀는 이승을 떠난다.

살아남은 알브레히트는 어떻게 될까? 지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시작은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이내 그 사랑은 자신을 거누는 칼이 된다. 뒤늦게 회한에 빠진 알브레히트는 절규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칼이 된 사랑은 그를 구원하는 흰 꽃이 된다. 알브레히트는 지젤과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며 그녀에게서 받은 사랑보다 더 큰 나눔을 행하는 근사한 남자가 되지 않았을까!

발레 속의 지젤, 알브레히트가 되어 슬프지만 그것을 견디며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연인들이 실제에서도 나오길 기대한다. 발레 <지젤>은 4월 5일부터 15일까지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마린스키발레단의 스타 김기민과 예카테리나 오스몰키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프를 선보이며 <지젤>의 감동을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문의 070-7124-1737 www.universalballet.com

포커스

글 한상현 사진 양수열

허동수 8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퇴임 연말 모금 4,000억 시대 열고 아너 회원 4배 늘렸다

허동수 제8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4년 3개월(2014.1~2018.3) 만에 회장에서 물러나 기업인으로 돌아갔다. 허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2018나눔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신임 사무총장도 부임한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게 됐다”면서 “공동모금회가 더욱 발전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모두 없애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3월 14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는 허동수 8대 공동모금회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허 회장은 “76년 생애 처음으로 퇴임사를 하는 날”이라며 “공동모금회와 함께한 시간이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회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어 다행이고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 회장은 “돌이켜 보면 나눔이라는 공지와 자부심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거듭한 시간이었다”며 “이제 공동모금회 회장의 막중한 책무를 내려놓고 기부자의 한 사람으로 모금회를 가깝고도 멀리서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모금회 경영 투명성도 한 단계 격상시켜

허 회장은 재임기간 중 연말연시 집중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모금액 4,000억 원 시대를 연 주인공이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이 취임 당시 438명이었으나 올 3월 기준 1,807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매월 매출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 가게는 20,000호를 돌파해 개인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분야를 빈곤·질병·소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긴급지원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공동모금회(UWW), 중화자선총회 등 국제 모금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했다.

허 회장은 기업 경영 능력을 모금회 운영에 도입해 사업 확장을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공동모금회 내부의 경영 투명성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국내 비영리기관 최초 국제 표준 회계 방식인 SAP(A1)를 도입하고, 통합정보체계 구축



허 회장 퇴임식 현장 모습

직원들이 직접 쓴 손글씨 액자 전달

공동모금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장에 허동수 회장과 김자경 여사가 나란히 들어서자 공동모금회 임직원과 참석자들은 이들 부부 아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퇴임식에는 김명자 부회장, 김인규 부회장(경기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김연순 사무총장, 이사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신현철 전 SK에너지 부회장,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연배 서울YWCA 명예이사, 이철 하나로메디컬케어그룹 회장, 한광수 가톨릭국제보건연구소 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감사인 박영관 변호사와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전국의 여러 지회장과 사무처장들도 퇴임식에 참석하러 먼 길 마다 않고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김주현 5대 사무총장과 박찬봉 6대 사무총장도 축하 꽃다발을 전했다.

조진호 경영지원본부 팀장이 중앙모금회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허 회장을 떠나 보내는 이별의 아쉬움을 손글씨로 받아서 만든 액자가 퇴임식에서 전달됐다. 중앙회의 각 본부와 전국 17개 지회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참여해 허 회장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재기 발랄하게 담은 동영상 메시지와 허 회장의 활동 내역을 담은 영상도 상영됐다. 직원들의 동영상 메시지를 시청하는 내내 허 회장 부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퇴임사를 전하던 때는 허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리기도 했다. 퇴임식이 끝나고 허 회장은 참석한 공동모금회 임직원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ERP)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바탕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켰다.

“사랑의열매가 세계 최고의 모금 기관 되길 기대”

허 회장은 그러나 자신의 업적을 “공동모금회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었다”고 직원의 공으로 돌리며 “언제나 저를 믿고 도와가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그는 “매년 어렵고 힘들었던 사회경제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의 노력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기부자와 봉사자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허 회장은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화학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73년부터 GS칼텍스에서 근무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에너지 전문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고 2006년 GS칼텍스 재단을 설립한 이래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예울마루를 개관했으며 여수엑스포 지원, 여수시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연세대학교 이사장으로서 모교 발전에 힘쓰고 있다.❀



허동수 회장
재임 4년의 발자취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 최초
4,000억 원 돌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4년간 4배 늘어

착한가게
20,000호 가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긴급지원 확대

국내 비영리기관 최초
국제 표준 회계방식 도입

국제 모금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기부문화 확산



©공동모금회

‘출범 20년’ 성년 되는 공동모금회 모금기관 ‘말형’으로 존경받으려면

오는 11월이면 공동모금회가 특별법을 통해 출범한 지 20년이 된다. 이제 겨우 청년이 된 조직이건만 현장은 모금회에 너무도 많은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화되는 복지 수요 앞에서 ‘부족’과 ‘한계’를 내보여 온 모금회의 ‘배분사업’이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선언하며 그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배분사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 바뀌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나라 기부·모금 현장의 ‘말형’일까 아니면 ‘독점기관’일까. 대형 비영리기관은 ‘세제 특혜를 받는 모금 경쟁기관’으로 여기고, 풀뿌리 비영리기관은 배분사업의 유연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한다. 결국 ‘말형’으로 존경받으리, ‘독점기관’으로 비판받으리지를 가르는 정점은 ‘배분사업’에 달려 있다. 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조직의 철학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17 사랑의열매 연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의 빈곤(68.8%)과 질병(14.6%), 소외(16.6%)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5,453억 원을 배분했다. 지원액 규모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지만(2015년 6,038억 원/2014년 4,504억 원/2013년 3,935억 원) 모금회는 취약계층의 기초생계와 의료지원에 집중하는 배분 내용을 보여 왔다. 그런 공동모금회가 최근 변화를 선언하며 진화된 배분사업에 도전할 것을 표명했다. 취약계층의 빈곤·질병·소외를 해결한다는 배분 미션에, 마을공동체·주민자치경제 등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시드머니(Seed Money)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투자적 복지’ 요소를 도입하는 셈이다.

‘비영리기관의 수익사업’ 외국 성공사례 참고를

기부와 투자가 결합되고, 전통적인 자선과 사회복지를 넘어 사회적 경제로 확대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경우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당시 정부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비영리기관들이 이를 메우기 위해 수익사업을 벌인 결과, 사회적 기업이 대폭 확산됐다. 최근에는 IT갑부들을 중심으로 ‘벤처 필란트로피(Venture Philanthropy)’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비영리기관에서 기부금을 받아 단발성 사업을 중심으로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투자와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 방식이다.

영국은 아예 정부에서 ‘제3섹터청’을 만들어 2012년 휴면예금계좌 등을 활용한 1조 원가량의 빅소사이어티캐피탈(BSC·사회투자 도매기관)을 설립해 사회적 경제 확산을 돕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이 만든 ‘지역공동체이익회사(CIC·Community Interest Company)’의 유연하고 자본주의적인 운영 법안이다. 비영리기관도 영리활동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주식 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도 가능하게 만든 법안이다. 다만 공동체를 위해 설립된 회사가 맞는지 심층적인 심사를 거쳐야 하고, 한 해 이익 중 35%까지만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 가능하며,



해산할 때에도 공동체에 양도돼야 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200개에 불과하던 CIC는 2016년 무려 1만2,000개를 넘어설 정도로 폭증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법인 격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배분 대상 확대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사랑의열매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야 할까. 제도나 시스템은 생각보다 느리게 변화한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은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보자.

서울시는 2012년 557억 원(시 526억, 민간 31억)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용자를 해왔다. 당시 이를 위탁받았던 기관의 대표는 “공무원들이 대손율을 0%로 유지하라고 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 애초부터 투자라는 것은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감수하는 것’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만약 용자한 사회적 기업이 빌린 돈을 못 갚으면 그 리스크를 모두 해당 공무원이 져야 한다.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 각종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범·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선례가 없으면 새로운 걸 시도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다.

공동모금회는 지금까지 정부의 업무 처리 기준을 따르느라, 또 기부금을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서류작업이 까다롭다는 평을 들어왔다. 투자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때로 모험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덧붙이자면 배분 대상의 확대뿐 아니라 기존 배분의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내 사회복지체계 자체가 아동·노인·청소년 등 ‘인구집단 중심’이다 보니 생겨난 문제기도 하지만, ‘사회문제 중심’으로 기존의 틀을 계속 바뀌어나가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 배분을 통해 사회사업 기관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인큐베이팅하고 끊임없이 생겨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 빠르게 조사하는 (신규)사업개발팀의 역량도 만들어 내야 한다. 모금에 대한 홍보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배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더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해 수억 원이 투입된 의미 있는 복지사업이 시행 3년 만에 종료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 많이 봤다. 그때마다 ‘3년 동안 혜택받은 친구들은 운이 좋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지? 복지가 이렇게 운에 맡겨져선 안 될 텐데’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곤 했다. 배분엔 정답이 없다. 분명한 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

'배달의민족' 창업 김봉진 대표 50억 개인 최고액 '배달의 기부'



'배달의민족' 창업자로 잘 알려진 김봉진 (주)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지난 3월 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대한민국 최고액 기부의 새 장을 열었다. 이번 기부로 김 대표는 공동모금회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의 1,811번째 회원이자 최고액 기부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중·고·대학생 장학금 및 멘토링 지원에 사용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한 김봉진 대표는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게 재단 설립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에 50억 원 기부를 약속하고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증서를 받았다. 가입식에는 신병철 배달의민족 최고 자문위원과 김 대표의 배우자 설보미씨가 함께했다. 약정한 기금은 향후 5년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과 멘토링 및 정서지원 사업에 쓰이게 된다. 김 대표는 "오늘의 저와 배달의민족이 있기까지는 많은 분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며 "성금이 과거의 저처럼 힘든 환경에서 노력하는 학생들이 꿈 위해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 대신 모금회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에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3년간 개인지분을 처분하여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과 함께 이 중 절반을 저소득층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김 대표는 재단 설립을 준비했으나, 재단운영 비용을 줄여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공동모금회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 기부를 결심했다.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은 공동모금회가 기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기부자의 조언에 따라 지원사업을 펼쳐는 원금소진형 기금운영 방법이다. 기부된 성금을 금융회사가 운용해 수익 등을 지원하는 기존 '기부자조언기금'에 비해 재원의 안정성이 높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단 설립 및 운영비용이 들지 않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월급 기부 이어 달력 판매수익금도 이웃에게 이스타항공, '착한일터' '착한권리' 가입

글로벌항공사 이스타항공(대표이사 최종구) 임직원들이 지난 3월 22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직장인 월급 정기기부 프로그램 '착한일터'의 올해 첫 회원으로 가입했다. 또 2018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달력 판매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며 지식재산권 수익금과 권리를 기부하는 '착한권리'의 기업 1호 회원이 됐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찾아 임직원을 대표해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과 '착한일터' 협약을 맺었다. 이어 달력 판매수익금을 전달하며 '착한권리'에 가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승무원들의 모델 재능기부를 통해 승무원들의 4계절을 담은 2018년 달력 '4 SEASONS OF EASTAR JET'를 제작했다. 제작된 달력은 판매수익금 전액 기부를 목표로 한정 판매됐다. '착한일터'와 '착한권리'로 기부된 성금은 빈곤·질병·소외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지원된다.

최종구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힘을 합쳐 공동모금회의 체계적인 기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이스타항공을 '착한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월급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의 성과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의 기부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라며 "공동모금회는 더 많은 직장인의 개인기부와 기업들의 사회공헌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목표로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임직원이 함께 소아암 투병 아동을 위한 비행기끝기대회 진행, 홀어르신 등을 위한 임직원 자선 바자회 및 떡국나눔, 김포·인천·부산·제주 등에서의 꾸준한 지역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저소득층 학생 조식지원사업에 1억 원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3월 19일, '서울시 저소득층 가정 학생 조식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갖고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 결식아동 조식지원 사업에 첫 기부를 시작한 이래 12년 동안 총 7억 6,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급여기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마련한 성금 1억 원은 서울시 강서·양천, 남부, 동작·관악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 선발된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강석진 도산 아카데미 이사장 아너 가입

강석진(전 GE 코리아 회장) 도산 아카데미 이사장이 3월 14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21년간 GE 코리아를 이끌며 세계화 경영의 모델로 이끌어 온 주인공으로,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총괄 고문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고문, 세계미술문화진흥협회 이사장, 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순태 아너, 성금 1,000만 원 전달

울산 35호 아너 김순태 회원은 3월 15일,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순태 아너는 2014년 11월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35호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특히 울산 2호 아너이자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초대회장이자 이금석 아너(경암문화장재단 이사장)와 함께 부부 아너로 지역 나눔 문화를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언양서부지역아동센터 비품 지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소장 백순홍)는 3월 16일, 신설 언양서부지역아동센터에 1,000만 원 상당의 비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신진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총무팀장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양서부지역아동센터가 하루빨리 자립하고, 이용하는 아동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센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이웃사랑 성금 10억 원을 기부하는 등 2001년부터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광동제약, 1억 원 상당 성금 및 의약품 지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2월 27일,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 사무실에서 '광동제약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행사'를 열고 1억 원 상당의 성금 및 의약품을 전달했다. 제주삼다수 소매용 제품의 도외지역 위탁판매를 맡고 있는 광동제약은 2013년부터 매년 약 1억 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을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임직원인 (사)희망의러브하우스 자원봉사자들과 집수리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탐라우돈, '삼겹살 데이' 행사 수익금 기부

제주시 노형동 소재 탐라우돈(탐라식육점·대표 박정호)은 3월 8일, 성금 450만 원을 제주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탐라우돈이 개업 7주년을 기념해 3월 3일 삼겹살 데이와 다음날인 4일까지 이틀간 사랑의 나눔 이벤트를 열어 번 총 매출액의 50%다. 성금은 노형동 관내 저소득가정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탐라우돈은 2014년 '착한가게'에 가입해 사랑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건네오고 있다.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 경북 1호 인세 기부 실천

이윤환 인덕의료재단(북주요양병원·경도요양병원) 이사장은 2월 27일, 본인의 저서 <불광불급:미치려면 미쳐라>의 인세 수익금 전액인 730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에 기부하고 '경북 1호 인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이사장은 이후 얻는 인세 수익금도 매년 추가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수 경북 공동모금회장은 "이윤환 이사장의 인세 기부는 경북에서는 첫 사례라 더욱 의미 있고 값지다"고 말했다.



경북 모금회, 경산 지역 저소득가정 교복 구입비 지원

경북 공동모금회는 2월 20일,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산 지역 저소득가정 학생 121명에게 새 교복 구입비 2,42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금은 경북 공동모금회와 경산시가 2012년부터 공동 진행하는 '경산 사랑나눔사업'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경산 시민 227명이 매달 정기기부로 이웃사랑 온정을 전했다. '경산 사랑나눔사업'은 경산 지역 특화 기부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1억 6,200여만 원을 모금해 집수리, 긴급 생계비 등에 지원했다.



평택북부노인복지관과 착한캠페인 협약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는 3월 14일, 평택북부노인복지관(관장 이원형)과 풀뿌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경기 공동모금회의 착한캠페인(착한가게, 착한가정, 착한일터)을 활용해 모금 활동을 벌이게 된다. 성금 전액은 평택 북부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특히 복지관은 복지관 내 후원이사회를 활용해 모금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우신협·의정부 서울신세계안과, 마스크 1,000장 기부

신우신협(이사장 김명철)과 의정부 서울신세계안과(원장 이경섭)가 경기 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에 미세먼지 마스크 1,000장을 전달했다. 이 마스크들은 최근 미세먼지 경보와 봄철 황사에 대비한 의정부 시민 건강치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홀몸어르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 건강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경섭 원장은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데 대해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마스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AI나눔봉사단, 산청군에 후원금 1,000만 원 기탁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나눔봉사단(단장 김조원은)은 3월 8일,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와 함께 산청군을 방문해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2016년 3월 설립된 KAI나눔봉사단은 재능기부, 봉사활동지원, 장학사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10가구를 선정, 도배, 장판, 싱크대, 창호·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 사회공헌사업 설명회 열어

경남 공동모금회는 3월 15일, 경남 공동모금회 대회의실에서 (주)두산중공업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 및 사업수행 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매년 (주)두산중공업이 창원시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76개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해 사업진행방향 및 사업수행 안내교육을 받았다.



인천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성금 전달

인천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혜순)는 2월 19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명환)에 이웃돕기 성금 813만 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지난해 착한가게 캠페인에 참여한 각 어린이집이 매월 3만 원씩 기부해 조성됐다. 인천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2014년 10월 전국 최초로 79개 어린이집의 착한어린이집 일괄 가입을 주도하며 지역사회 이웃을 돌보는 데 동참해 왔다. 현재까지 착한어린이집 누적 기부금은 총 5,019만 원에 달한다.



임남례 동양주택 대표, 인천 여성 아너 클럽 초대 회장 취임

임남례 동양주택·하림코리아푸드 대표가 인천 W아너 소사이어티(여성 아너 회원 모임) 클럽 제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2월 27일 열린 취임식에서 임남례 초대 회장은 “그간 아너 클럽 내부에서 여성 모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앞으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과 봉사활동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해 인천 나눔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호남지역본부, 지역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한국투자증권 호남지역본부(본부장 니중운)는 3월 27일,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를 통해 광주 지역의 대학생 5명에게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투자증권 호남지역본부는 2014년부터 광주 지역 금융기관 최초로 모든 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2만 원 이상 기부하는 직장인 나눔 캠페인, 각 지점별로 착한일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은행, '광주 · 전남 사랑카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카드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광주 · 전남 사랑카드'를 출시했다. 출시 상품은 광주 · 전남 사랑카드, 광주 · 전남 사랑 플래티늄카드, 광주 · 전남 사랑 아너스 카드 3종으로, 카드이용금액의 0.5%가 고객이 선택한 지역의 공동모금회에 기부된다. 서울 등 외지에 거주하는 출향민들은 카드를 발급받고 광주 · 전남 23개 지역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대전시 의사회, 사랑의 장학금 720만 원 전달

대전광역시 의사회(회장 송병두)는 2월 23일, 더오페라웨딩 컨벤션홀에서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에 대전 지역 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 72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 6명에게 각각 12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대전시 의사회는 2011년부터 '착한병원캠페인'에 동참, 매년 성금을 모금해 중·고등학생 장학금 사업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중부권연합, 백미 220kg 전달

(사)한국시민기자협회 중부권연합(회장 김성호)은 지난 2월 말, 대전 공동모금회에 백미 220kg(11포)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쌀은 한국 시민기자협회에 소속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지역 100여 명의 시민기자들이 중부권연합 창립대회를 진행하면서 축하 화환으로 받은 백미를 모은 것으로, 대전 지역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되었다.



서산에서 부부 '착한가게' 가입

서산에서 '착한가게' 캠페인에 나란히 참여한 착한부부가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는 3월 16일 오전 10시, 서산시 석림동에 위치한 한국자동차 정비(대표 최장석)와 서산시 예천동 더런드리 빨래방 서산예천점(대표 박지연)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이들 부부는 남편 최장석 대표가 착한가게에 참여한 뒤 아내 박지연씨에게도 권유해 부부 착한가게가 탄생하게 됐다.



이스코인더스트리 임직원, 나눔리더스클럽 부여군 2호 가입

이스코인더스트리(대표 김종완) 임직원 일동이 3월 14일, 충남 공동모금회 나눔리더스 클럽 부여군 2호로 가입했다. 김종완 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임직원은 이번 나눔리더스 클럽에 가입하며 1,35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김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 기부금은 사랑의 동전 모으기 및 직원들의 임금에서 십시일반 모은 금액과 회사의 매칭지원금 200%를 더한 금액이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에서 부부 나눔리더 3·4호 등록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는 지난 3월 6일, 순천에서 부부가 나눔리더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나눔리더의 주인공은 3호 박혜정(청암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씨와 4호 김남규(순천한마음치과 원장)씨 부부이다. 이들은 2월 12일 첫 번째 교수 부부 나눔리더에 이어 전남의 2번째 부부 나눔리더이다. 나눔리더는 개인이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일시로 기부하거나 약정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도회에드가, 이웃사랑 성금 3,950만 원 기탁

건설·분양기업인 도회에드가(대표 조현철)가 3월 5일, 전남 공동모금회에 3,950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저소득 고연령 장애인들의 보청기 구입에 쓰였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및 사회복지시설(장애아동·노인) 프로그램·기능보강사업 등에도 지원되었다. 도회에드가는 2015년부터 총 2억 6,45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부산



저소득층 보금자리 지원 '해운대 러브하우스' 사업 협약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와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백선기, 객필란)는 2월 26일, 저소득 주민의 보금자리 지원을 위한 '해운대 러브하우스' 사업 협약을 맺었다. 본 협약은 공적 지원으로 해결하기 힘든 취약계층 문제를 지역 주민과 함께 타개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올해 해운대구 취약계층에 성금 3,570만 원이 지원되며, 이사 지원 및 정리수납 서비스, 냉난방기와 제습기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아너 클럽,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박성진)은 연탄이 부족한 가정이 많은 소식을 듣고 꽃샘추위를 앞둔 2월 21일, 부산시 동구 범일5동 매축지마에 위치한 (사)부산연탄은행에 연탄 1만 장을 전달했다. 회원들은 전달식을 마친 후 직접 각 가정에 연탄을 배달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정기 봉사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어온 매실보육원의 고등학교 졸업생 8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강원



임기수 한국타이어 춘천판매 대표, 강원대에 장학금 전달

'기부왕'으로 잘 알려진 임기수 한국타이어 춘천판매 대표가 2월 26일, 강원대학교를 찾아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30년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임기수 대표는 2월 7일 해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엔 강원대학교 내 외국에서 온 유학생 포함 재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임 대표는 "도움받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어 각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의용소방대·춘천소방서, 화재피해 가정에 성금

강원도의용소방대(회장 김용기)와 춘천소방서(서장 안중석) 소방대원들은 3월 5일, 춘천시 북산면 주택화재 유가족에게 성금 7,104만 5,000원을 전달했다. 김모 의용소방대원은 지난 1월 31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대피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부인을 구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번 성금은 강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모금한 성금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에게 전달되었다.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사랑의 모금함 성금 전달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환)는 3월 8일,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동대구역, 중앙로역, 명덕역, 신남역 등 5개소에 설치된 모금함의 성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모은 1,126만 1,391원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역 대구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의 생계비 및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사 임직원 100여 명은 '착한대구캠페인'에 동참해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영원무역, 대구 소외이웃에 의류 및 용품 기탁

(주)영원무역(대표 성기학)은 3월 7일, 대구시청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 700여 점(3,000만 원 상당)을 대구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노스페이스' 등의 브랜드를 제조·수입하는 (주)영원무역은 계열사 기부까지 포함하여 매년 2억 원 상당의 의류 및 용품 등을 대구 지역에 기부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용품들은 대구 내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전달되어 소외계층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팔도상회, 복돈 마수걸이 전달식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와 청주 서원구 수곡2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완식, 이영미)는 3월 15일, 관내 팔도상회(대표 김영환)와 첫 손님의 판매금액을 적립하는 '복돈 마수걸이' 모금함 전달식을 가졌다. 2015년부터 이어 온 '복돈 마수걸이' 모금은 현재까지 27호점이 참여하고 있으며, 팔도상회는 올해부터 참여 사업체로 등록했다. 성금은 수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사업에 쓰이거나 위기 가정에 지원된다.



진천여객, 저소득층 아동 위한 성금 기탁

진천여객 신동삼 대표는 3월 16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성금 3,6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내년 3월까지 충북 공동모금회를 통해 진천군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10명에게 매달 30만 원씩 12개월 동안 전달된다. 신동삼 대표는 "기탁한 성금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힘겨운 아이들을 살피며 항상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람동 지역협의체, 착한일터·착한가게 현판 전달

보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정근)와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는 3월 14일, 글벗유치원과 GS25 소담수자인점을 방문해 '착한일터'와 '착한가게' 현판을 각각 전달했다. 보람동 협의체는 세종모금회와 연합모금 협약을 맺고 주변상가·공공기관·학교 등을 대상으로 '착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보람동협의체를 통해 보람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과 보람동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 사랑의저금통 전달식

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인숙)는 3월 16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세종 지역 어린이들이 모은 성금 2,613만 1,630원을 세종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웃과 더불어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모은 사랑의저금통을 통해 8,500여만 원을 기탁했으며, 성금은 세종 지역 어린이 106명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로 5,700여만 원이 지원됐다.

전북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총회 개최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는 3월 16일 2018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총회를 개최했다.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는 2012년 배준식 1호 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2015년 3명, 2017년 14명 등이 가입하면서 현재 45명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기부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봉사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저소득가구를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올바른 나눔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전북 지역 '착한가게' 1,400호 돌파

전북 지역 내 '착한가게'가 1,400호를 돌파했다. 1,400호의 주인공은 전북은행 화산지점으로, 특히 전북 지역 은행으로는 첫 동참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상호 지점장은 "전북은행 지점 차원에서 첫 번째로 가입하는 만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객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는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국내 최대의 기부자 클럽입니다.

서울 228호

장재성 (주)스페이스스타워 대표



"어린 시절 어렵게 자랐다. 그 시절을 기억하며, 꿈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 환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대전 64호

박현민 로보쿠 대표



"셋째 돌을 맞아 잔치 대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게 됐다.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남을 생각하며 세상의 밝은 빛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인천 118호

박은상 (주)선두종합건설 대표



"회사 사훈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익은 사회에 기여하자'인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으로 사훈을 몸소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

대구 116호

현수환 (주)동원약품 회장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50년 동안 사랑을 보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이 동참해 대구 지역에 나눔문화가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다.”

대구 117호

장채주 (주)동원약품 약사



“우리의 작은 용기가 나눔 실천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이 탄생했으면 한다.”

부산 140호

우방우 금양상선(주) 회장



“기업의 이윤은 사회 환원을 통해 만인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눔을 펼쳐왔다. 나눔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다.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

부산 141호

장인화 (주)화인베스틸 회장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지만 나누기 때문에 더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겠다.”

부산 142호

박정희 (사)부산사랑나눔회 이사장



“나 자신과 70세까지는 나눔과 봉사를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가족으로부터 큰 에너지를 받고 더 큰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나눔을 통해 기쁨 누릴 수 있어 감사한다.”

광주 75호

박현규 (주)대영ISD 대표



“어려운 시기에도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다. 오늘 기부가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일어서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

광주 76호

최윤경 (주)공영산업 대표



“남편과 함께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이 되어 기쁘다. 앞으로 기업인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더욱더 지역사회에 뜻함을 전하고 나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 70호

박태훈 씨앗과사람들 대표



“사육 이전 1주년을 기념해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고자 아너 가입을 결심했다. 앞으로 신규 일자 창출과 기부로 지역과 공생하도록 노력하겠다.”

전남 71호

조세용 미르치과병원 원장



“기부는 남모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나의 결심으로 또 하나의 나눔의 씨앗이 뿌려진다면 더 없이 좋을 것 같다. 아너 소사이어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제주 86호

김순희 (주)오현개발 대표



“지역사회에서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은 만큼 미력하나마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

충남 79호

김영근 (주)합동지질 대표



“여유 있을 때보다 조금 부족할 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더 값진 거라고 생각해 아너에 가입하게 됐다. 소외된 이웃에 더 많은 나눔의 우물을 선물하도록 노력하겠다.”

중앙회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봉진 유아한형제들 대표

대구 공동모금회 최영수 크레딧책임 회장

경기 공동모금회 이재형 (주)엘케이베이즈웨어 대표, 노동훈 카네이션요양병원 병원장

전북 공동모금회 양공진 레오개발 대표이사, 양승춘 양승춘치과 원장

울산 공동모금회 김필자 덕원농장영농조합법인 대표

충남 공동모금회 이규석 광천조아맛길 회장

전남 공동모금회 김인수 (유)와이지개발·와이지건설(주) 대표

부산 공동모금회 익명, 익명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호 독자의견

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나눔교육'은 나누면 행복해짐을 인식하게 하고 개념부



터 시작해 실천에 이르기까지 정말 나눔이야말로 살아가는 데 필수인 산소와 같은 것임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배을순 · 부산 북구

'자녀들에 칭찬, 격려, 신뢰 아끼지 마세요'를 읽고 자녀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김미정 강사의 생활 속 나눔교육은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나누고 베풀며 봉사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훌륭한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최영지 · 대구 달서구

아직은 어리기만한 아이들의 아 빠입니다. 그래 선지 애나네 삼 남매 이야기가 눈길을 끌



었습니다. 전희숙 어머니의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기부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는 말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호우 · 인천 연수구

참여방법

-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열매 단행본 세트



우산



열매 배지, 열매밴드



USB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내일을 만드는 화학

언제까지 마실 물을
걱정해야 하는 걸까
깨끗한 물을 남기는 것이
왜 지구의 숙제가 되었을까
끝없는 도전으로
끝없는 물을 만들자
마르지 않는
내일의 자원을 만들자



지구의 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수처리 솔루션**

LG화학은 인류에게 꼭 필요한 미래자원인 물을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용도에 맞게 처리하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피

향긋한 커피 한 잔에 사랑과 나눔의 향기를
더하는 이들이 있다. 포항멘토장애인평생교육원
교육생 하민수, 이세건, 최민수씨는 직업재활을
위해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했다.

커피를 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말하는 이 세 사람은 땀 흘려 일해 번 돈의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작은 커피콩이

모여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되는 것처럼,
작은 마음이 모이면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